

## 청년의 창업교육 참여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구성 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유현경(단국대학교 미래ICT융합학과)\*, 남정민(단국대학교 미래 ICT융합학과 겸  
글로벌벤처창업학과)\*\*

### < 목 차 >

|                       |                    |
|-----------------------|--------------------|
| I. 서론                 |                    |
| II. 이론적 배경            | 4-2. 확인적 요인분석      |
| 2-1. 창업 교육            | 4-3.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 |
| 2-2. 기업가정신            | 4-4. 변수 간의 상관분석    |
| 2-3. 자기효능감            | 4-5. 구조모형 검증       |
| III. 연구 방법            | 4-6 추가연구 분석        |
|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 V. 결론 및 제언         |
|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5-1. 연구 결과 요약      |
| 3-3. 설문지의 구성          | 5-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
| IV. 연구 결과             | 참고문헌               |
|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및 집단비교 | Abstract           |

### < 요약 >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창업 교육이 자기효능감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가 창업교육과 기업가정신을 각각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또한 창업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만들어지는 경로에서 창업 교육의 유형(정규교과 및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 및 참여 횟수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와 기업가정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 교육의 참여는 기업가정신,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에 정(+)의 영향을 주었고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업도전감은 창업 교육 참여 횟수와 기업가정신을 매개한다. 정규교과창업교육과 비교과창업프로그램 횟수의 증가에 따라 기업가정신,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은 기업가정신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창업 교육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

\* 주저자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학과 박사과정 창업학전공 happyhk1221@gmail.com

\*\* 교신저자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학과 교수, namjm@dankook.ac.kr

• 논문투고일 : 2021-04-08. • 수정일 : 2021-05-10. • 게재확정일 : 2021-5-31.

청년 대상의 창업 교육 참여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구성 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정 설계와 개인의 교육 참여 계획을 통해 창업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창업 교육,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

## I. 서 론

기업가정신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경력 개발과 삶의 철학까지 확장하여 현대 사회의 모든 직업군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및 유럽에서는 진로교육과 평생학습 차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준우 외, 2014). 국내 대학들의 창업 교육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양적 팽창에 집중한 만큼 질적 성장에는 부족함이 나타났다(목영두·최명길, 2012). 이후 진행된 연구에서도 국내의 창업 교육은 대학 차원에서 양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일반 대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며 대학의 교과과정으로 진행되는 창업 교육의 내용을 보면 범용적인 경영 이론이나 교양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있다(남정민, 2017).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창업 교육을 받은 졸업생은 자기 고용의 가능성이 크고 연간 수입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생 벤처기업 설립 가능성과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원상필·조근태, 2018). 따라서 창업 교육이 반드시 창업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업무에 대한 만족과 새로운 기회의 발견으로 연결되므로 양적인 확대와 함께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창업 교육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로 연구한 예는 많이 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자기효능감을 하나의 측정 변인으로 하여 연구되었으나, 자기효능감을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 각각의 변수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거의 없다(김성식·전병훈, 2021).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창업 교육을 통해 이 세 가지 요인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각 요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내용과 전략이 달라야 하고, 각 요인이 기업가정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교육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육의 효과 이면에는 교육의 종류, 내용, 경로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 교육이 교육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업 교육의 유형에 따른 효과 분석과 양적 적절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 교육이 기업가정신의 향

상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을 각각의 매개변수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창업 교육에 참여를 창업 교육의 종류와 양적인 횟수로 구간을 나누어 창업 교육의 종류와 양적인 차이가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창업 교육

창업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는 관점에 의해 창업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Ronstadt(1985)는 창업 교육은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기획 및 계획하며,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창업 관련 기능, 태도, 지식 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 교육은 일방적으로 학습자를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퍼실리테이터나 대리자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학습 동기를 유발해 줌으로써 학습자가 경험을 통해 필요를 스스로 느끼게 해 체득하게 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진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목영두·최명길(2012)은 창업 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대표적 학자들의 관점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창업 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구분     | Ronstadt(1985)                                                | Shapero(1985)                                                       | Vesper(1988)                                                      | McMullan & Long(1990)                                             |
|--------|---------------------------------------------------------------|---------------------------------------------------------------------|-------------------------------------------------------------------|-------------------------------------------------------------------|
| 관점     | New School                                                    | Entrepreneurial Event                                               | Start-up Position                                                 | Growth Venture Position                                           |
| 강조점    | 체험적 학습 방법                                                     | 창업발생조건 및 개인 동기요인                                                    | 창업계획                                                              | 전략과 창조성                                                           |
| 교육의 범위 | 창업 과정을 고려한 교과목 설계<br>(정형적 과목을 학습에서 비정형적 체험 학습으로 순차적 학습 구조 반영) | 창업 발생 조건<br>(부정적 선택요인, 과도기적 공백 요인, 적극적 유인)<br>개인 동기<br>(창업 욕구 및 성공) | 창업의 시작 단계에 중점을 둠<br>(일반적 사업지식, 일반적 창업지식, 창업 기회와 관련된 특정 지식, 창업 기회를 | 창업 초기과정과 성장 진입단계<br>(창업 과정의 불확실성, 위험부담, 사업경영 능력, 창조성과 혁신 등의 내용을 반 |

|  |  | 가능성에 대한 인식)<br>창업지식 및 기술 | 실제 창업으로 연결<br>할 수 있는 창업 관<br>련 특정 지식) | 드시 포함) |
|--|--|--------------------------|---------------------------------------|--------|
|--|--|--------------------------|---------------------------------------|--------|

창업 교육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넓은 의미에서 창업 교육은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박채준 · 김달원 · 황지영 · 남정민, 2021).

국내 창업 교육의 유형은 정규교과의 학점인정 강좌와 비정규교과의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로 구분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 창업진흥원 · 한국연구재단, 2019). 이 두 유형의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비교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체험형 강좌를 수강한 학생은 이론형 창업강좌를 수강한 학생에 비해 창업 의도가 높게 나타나고 창업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김용태, 2018; 박찬희, 2017). 특히 비정규교과 과정의 Maker Space형 창업프로그램과 경연형 창업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합리적 위험 감수적 성향을 갖도록 하였고 아울러 창업 의도 형성에 있어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성, 2018).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창업 역량은 단순한 강의나 교육을 통해서 개발하기 어려우므로 효과적인 창업 교육을 위해서는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을 볼 수 있다(김용태, 2018; Ronstadt, 1985).

비정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은 정규교과 창업교육을 경험한 학생의 10%(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 창업진흥원 · 한국연구재단, 2019)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서 창업 교육의 효과성으로 볼 때 비정규교과의 교육 형태가 정규교과에서 진행된다면 양적, 질적인 향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 2.2 기업가정신

Drucker(1985)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극복하여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으로 사업화를 주도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을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고 하였다. 기업가정신은 혁신적이고 진취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역량으로 성장 기회를 발견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한 창업자, CEO, 설립자 등에게 필요한 역량이다(Covin & Slevin, 1991).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Isenberg, 2011). 윤백중(2012)은 변화가 빠른 기업의 경쟁 환경에서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성취욕구 등을 통하여 창의적인 기회 발굴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기업가정신이라고 하였다. Miller(1983)는 기업가의 개인 특성을 기업가적 지향성 체계를 갖추어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3요소로 구분하고 이를 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라 하였다.

Miller(1983)는 경영자가 국내 외 시장에 신제품과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고 기회를 발굴하면서 진보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을 주도하고자 하는 성향을 진취성이라고 하였다. 기업가정신에서 진취성은 상대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영 철학으로 기업가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니즈를 예측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진취성은 시장 진입 속도나 시장의 범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Vesper, 1982; 윤종록·김형철, 2009). 이춘우(2019)는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성공 확률이 낮아도 불구하고 낮은 성공 확률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기업가는 진취적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성미(2020)는 새로운 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을 이끄는 적극적인 성향인 진취성은 상대방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위한 기업가적 성향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은 기존의 관행을 따르기보다는 창업자 또는 기업가 등이 일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모든 인적·물적 요소와 힘을 새롭게 결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행동으로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Miller, 1983). 모든 기업은 경영과 성장 및 마케팅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혁신성은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혁신성은 외부의 제한적 환경자원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가정신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김택수,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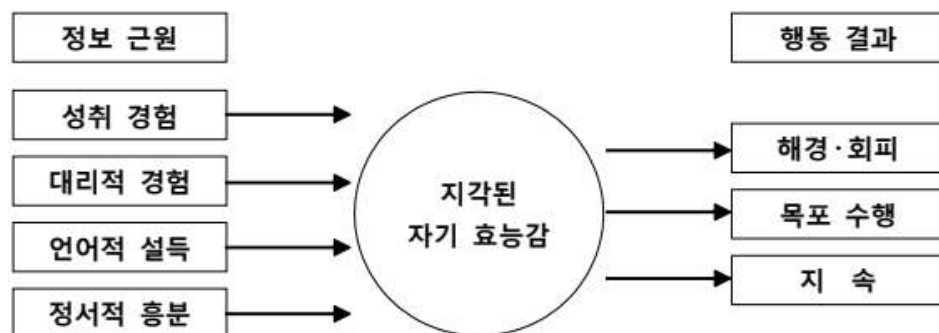
위험감수성은 창업자가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불확실한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을 극복해 내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위험감수성은 신사업 개척과 혁신적인 조직을 세우고 이끄는 성취욕구적인 성향이고(송영수, 2010), 현재 존재하는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결합으로 새로운 조직의 확산을 통한 창조적인 활동이다(배귀희, 2011).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위험을 방치하는 기업가의 무리한 도전이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다가와 기업 성장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성미, 2020).

## 2.3 자기효능감

### 2.3.1 자기효능감의 개념

미국의 심리학자 Albert Bandura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해 ‘행동 변화의 통합이론(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을 제시하며, 개인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요한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인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행동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하였다(Bandura, 1977; Bandura & Wood, 1989). 자기효능감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사용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학업 자기효능감, 진로 효능감, 창업 효능감 등 각 영역에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자기효능감도 있다. Bandura(1977)는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에 대한 개인의 인지를 기본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한 믿음을 반영한 후천적인 학습경험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래 <그림 1>의 지각된 자기효능감 기대에서와 같이 Bandura는 ‘사회학습 분석(Social Learning Analysis)’이라는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성취 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대리 경험(Vicarious Experience), 정서적 각성상태(Emotional Arousal)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고 이를 통해 행동 결과가 나타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 지각된 자기효능감 기대



창업에 도전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창업 효능감은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 교육을 통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해 실제로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Boyd & Vozikis, 1994). 따라서 창업 교육, 기업가정신 등에 관한 연구와 함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져 왔으며, 양준환(2014)은 창업 분야에서 반복, 숙달된 경험과 과업 달성 과정에서 실패한 경험, 성공한 경험 등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성장한다고 주장하였다.

Newman et al.(2019)은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여 창업 의도에 영향을 주는 규제적 행위로 창업 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창업 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창업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성격, 교육과 훈련, 직무 경험, 롤 모델 등을 제시하였고, 형성된 창업 효능감은 기업가정신, 창업 행동 등으로 이어짐을 프레임워크로 정리하였다.

### 2.3.2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 및 이론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본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 가지 개념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으로 지각된 자기효능감을 표현하고 있다(Bandura, 1993; Schunk, 1991).

#### 2.3.2.1 자신감

자신감(Self-Confidence)이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개인의 능력, 역량에 대한 확실성이다. 자신감이란 자신에 대한 확신의 강도를 말하는데 인지된 능력에 대한 강도와 믿음으로서 구체화 된 수준보다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자신감은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어떤 신념의 정도로 일부 축소된 의미를 적용하기도 한다(Sherer et al., 1982). Bandura(1986)는 자신감을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결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기효능감의 요소이며,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또한, 자신감을 자신의 역량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 또는 신념으로 정의하며 인지적인 판단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정서 반응으로 표출된다고 주장하였다(Bandura, 1986).

#### 2.3.2.2 자기조절효능감

자기 업무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조절효능감이란 자기관찰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지과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기 과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다(Bandura, 1986; 1993). 기본적으로 자기조절은

청년의 창업 교육 참여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 구성 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자신에 대한 인지행동이기에 때문에 개인 자신의 행동과 현재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며 동시에 개인의 목표에 대한 수행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부정적 상황이라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동을 하며, 긍정적 상황이라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아영 · 차정은 · 강한아 · 임경민 · 전현아 · 조혜령 · 임지영 · 석혜은, 2012).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말하는 자기조절효능감이란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자기관찰과 자기 판단으로 자기 반응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효능기대라 정의할 수 있다(안태욱, 2017).

### 2.3.2.3 과업 도전감

과업 도전감은 개인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며, 선호하는 과업의 난이도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개념화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선호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성향의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고, 편하며 조절 가능한 쉬운 과제만을 선호하며 선택하려 행동한다(Bandura, 1977). 따라서 도전적인 과업과 구체적인 목표를 선호하여 이를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Latham & Locke, 1991) 과업 도전감은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인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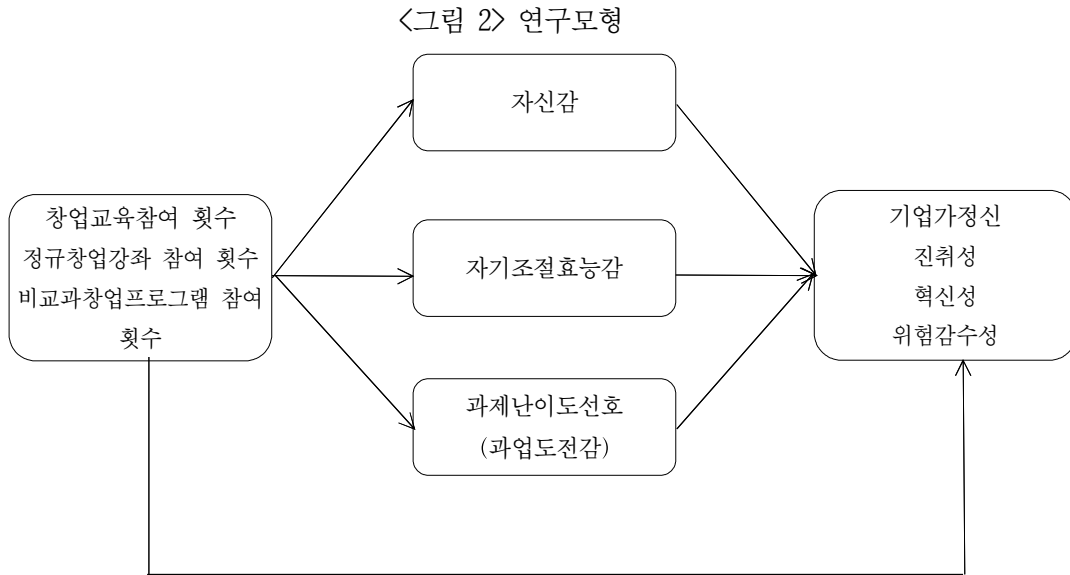
### 3.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창업 교육에 참여한 횟수가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 도전감이 각각 어떻게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연구하고자 하며, 이어서 창업 교육의 종류에 따른 효과성을 보고자 한다. 따라서 기본 연구는 창업 교육참여 횟수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 구성 요소의 매개효과로 분석하고, 추가 연구로 창업 교육 종류별 참여 횟수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3.1.1 연구의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정규교과로 진행된 창업교육과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기업가정신을 매개하는 변수로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를 설정하여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가설 1: 창업 교육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창업 교육 참여 횟수는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창업 교육 참여 횟수는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창업 교육 참여 횟수는 자기조절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창업 교육 참여 횟수는 과업도전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는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자신감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자기조절효능감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과업도전감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는 창업 교육 참여 횟수와 기업가정신을 매개할 것이다.

H4-1: 자신감은 창업 교육 참여 횟수와 기업가정신을 매개할 것이다.

H4-2: 자기조절효능감은 창업 교육 참여 횟수와 기업가정신을 매개할 것이다.

청년의 창업 교육 참여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 구성 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H4-3: 과업도전감은 창업 교육 참여 횟수와 기업가정신을 매개할 것이다.

### 3.1.2 추가연구 연구 설계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에 이어 창업 교육의 종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창업 교육을 정규교과 창업교육과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창업 교육의 종류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창업 교육 별 창업 횟수를 범주화하여 세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와 기업가정신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추가가설 : 창업 교육 유형별 참여 횟수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와 기업가정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에 참여한 39세 이하 511명 중 결측값이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407명의 응답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2.0와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통계적 분석을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다. 둘째,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행하였다. 셋째, 연구 척도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의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넷째,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다중 매개변수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s)를 활용한 부트스트랩(Bootstrap)분석을 하였다. 여섯째, 창업 교육의 종류에 따른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해 창업 교육의 횟수를 3단계로 범주화하여 창업 교육의 종류별 3개 집단의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 3.3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변수는 총 37문항으로 독립변수는 창업 교육 참여, 종속변수는 기업가정신, 매개변수는 자기효능감이다. 창업 교육 참여는 창업 교육의 참여 횟수를 0에서 5회로 측

정하였고,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은 리커트척도(5점)를 사용하였다. 주요 변수의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한 문항을 함께 온라인 설문지로 만들어 응답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현황

| 부분        | 세부 분야             | 문항 수 | 출처 및 특이사항                                       |
|-----------|-------------------|------|-------------------------------------------------|
| 창업 교육 참여  | 정규교과 창업교육참여 횟수    | 1    | 참여 횟수 측정                                        |
|           |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참여 횟수 | 1    |                                                 |
| 기업가정신     | 혁신성               | 5    | 윤백중(2012)<br>Covin & Slevin(1986)<br>한경석(2020). |
|           | 진취성               | 5    |                                                 |
|           | 위험감수성             | 5    |                                                 |
| 자기효능감     | 자신감               | 5    | Bandura(1997)<br>홍현경(2012)<br>안태욱(2017)         |
|           | 자기조절효능감           | 5    |                                                 |
|           | 과업도전감             | 5    |                                                 |
| 인구통계학적 특성 |                   | 5    |                                                 |
| 총         |                   | 37   |                                                 |

## IV. 연구 결과

###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한 407명의 개인별 특성을 살펴보면 창업자 189명, 비창업자 2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남성은 44.2%, 여성은 55.8%, 10대는 2.5%, 20대는 84.3%, 30대는 13.3%로 나타났다.

<표 3>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 구 분 |    | 빈도(명) | 비율(%) |
|-----|----|-------|-------|
| 성별  | 남성 | 180   | 44.2  |
|     | 여성 | 227   | 55.8  |

청년의 창업 교육 참여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 구성 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            |          |     |      |
|------------|----------|-----|------|
| 연령         | 10       | 10  | 2.5  |
|            | 20       | 343 | 84.3 |
|            | 30       | 54  | 13.3 |
| 전공         | 인문/사회/교육 | 129 | 31.7 |
|            | 상경       | 84  | 20.6 |
|            | 공학       | 87  | 21.4 |
|            | 자연       | 40  | 9.8  |
|            | 예체능      | 44  | 10.8 |
|            | 의학       | 22  | 5.4  |
|            | 기타(결측)   | 1   | 0.2  |
| 학력         | 고졸~대학재   | 314 | 77.1 |
|            | 학사졸      | 70  | 17.2 |
|            | 석박사      | 23  | 5.7  |
| 부모창업<br>여부 | 여        | 131 | 32.2 |
|            | 부        | 276 | 67.8 |
| 현재창업<br>여부 | 여        | 189 | 46.4 |
|            | 부        | 218 | 53.6 |

## 4.2 확인적 요인분석

문항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AMOS 26.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 교육 참여,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에 대한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1239.195(p<.001)$ , TLI=0.887, CFI=0.899, RMSEA=0.067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SMC가 0.4 미만인 자기조절효능2, 진취성1, 진취성2 측정변수를 제거하고 혁신성5와 혁신성2의 오차항을 공분산하였다. 그 결과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최종모형의 적합도

| 모형   | $\chi^2$   | df  | TLI   | CFI   | RMSEA |
|------|------------|-----|-------|-------|-------|
| 측정모형 | 956.138*** | 355 | 0.907 | 0.918 | 0.065 |

문항 제거 후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표 5>와 같이 기업가정신, 자기효능감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잠재변수        | 측정변수              | Estimate |         | S.E.  | C.R.     |
|-------------|-------------------|----------|---------|-------|----------|
|             |                   | <i>B</i> | $\beta$ |       |          |
| 창업 교육 참여 횟수 | 정규교과창업<br>교육참여 횟수 | 1.000    | 0.789   |       |          |
|             | 비교과창업교육<br>참여 횟수  | 1.144    | 0.815   | 0.159 | 7.185*** |
| 기업가정<br>신   | 혁신성               | 혁신성1     | 1.000   | 0.717 |          |
|             |                   | 혁신성2     | 1.152   | 0.739 | 0.082    |
|             |                   | 혁신성3     | 1.300   | 0.868 | 0.079    |
|             |                   | 혁신성4     | 1.049   | 0.771 | 0.071    |
|             |                   | 혁신성5     | 1.198   | 0.754 | 0.083    |
|             | 진취성               | 진취성3     | 1.000   | 0.658 |          |
|             |                   | 진취성4     | 1.141   | 0.756 | 0.090    |
|             |                   | 진취성5     | 1.061   | 0.743 | 0.085    |
|             | 위험<br>감수성         | 위험감수성1   | 1.000   | 0.775 |          |
|             |                   | 위험감수성2   | 0.870   | 0.772 | 0.054    |
|             |                   | 위험감수성3   | 0.840   | 0.706 | 0.057    |
|             |                   | 위험감수성4   | 0.813   | 0.752 | 0.052    |
|             |                   | 위험감수성5   | 1.041   | 0.797 | 0.062    |
| 자기<br>효능감   | 자신감               | 자신감1     | 1.000   | 0.754 |          |
|             |                   | 자신감2     | 1.141   | 0.854 | 0.065    |
|             |                   | 자신감3     | 0.870   | 0.748 | 0.057    |
|             |                   | 자신감4     | 1.151   | 0.790 | 0.071    |
|             |                   | 자신감5     | 1.128   | 0.824 | 0.067    |
|             | 자기조절<br>효능감       | 자기조절효능감1 | 1.000   | 0.775 |          |
|             |                   | 자기조절효능감3 | 0.949   | 0.773 | 0.062    |
|             |                   | 자기조절효능감4 | 0.837   | 0.700 | 0.061    |
|             |                   | 자기조절효능감5 | 0.917   | 0.763 | 0.061    |
|             | 과업<br>도전감         | 과업도전감1   | 1.000   | 0.704 |          |
|             |                   | 과업도전감2   | 1.161   | 0.851 | 0.072    |
|             |                   | 과업도전감3   | 1.159   | 0.840 | 0.073    |
|             |                   | 과업도전감4   | 1.151   | 0.831 | 0.073    |
|             |                   | 과업도전감5   | 1.088   | 0.801 | 0.071    |

\*\*\*p&lt;.001

### 4.3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창업 교육 참여와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 기업가정신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앞서 진행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제거하고, 신뢰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든 항목의

청년의 창업 교육 참여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 구성 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Cronbach's alpha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6〉 신뢰도 분석 결과

| 구분   | 측정변수         |                       | 최초<br>항목 수 | 최종<br>항목 수 | 신뢰도  |
|------|--------------|-----------------------|------------|------------|------|
| 독립변수 | 창업교육참여<br>횟수 | 정규교과 창업교육참여<br>횟수     | 2          | 2          | .780 |
|      |              | 비교과 창업교육<br>프로그램참여 횟수 |            |            |      |
| 매개변수 | 자기효능감        | 자신감                   | 5          | 5          | .893 |
|      |              | 자기조절효능감               | 5          | 4          | .839 |
|      |              | 과업도전감                 | 5          | 5          | .902 |
| 결과변수 | 기업가정신        | 혁신성                   | 15         | 13         | .924 |
|      |              | 진취성                   |            |            |      |
|      |              | 위험감수성                 |            |            |      |

#### 4.4 변수 간의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창업 교육 참여 횟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 기업가정신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7〉 상관분석

| 변수             | 창업 교육<br>참여 횟수 | 자신감     | 자기조절<br>효능감 | 과업도전감   | 기업가정신 |
|----------------|----------------|---------|-------------|---------|-------|
| 창업 교육<br>참여 횟수 | 1              |         |             |         |       |
| 자신감            | .177***        | 1       |             |         |       |
| 자기<br>조절효능감    | .137***        | .561*** | 1           |         |       |
| 과업도전감          | .227***        | .482*** | .429***     | 1       |       |
| 기업가정신          | .293***        | .541*** | .547***     | .734*** | 1     |

\*\*p<.01, \*\*\*p<.001

## 4.5 구조모형 검증

### 4.5.1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는 정규교과 창업 교육 참여 횟수와 비교과 창업프로그램 참여 횟수가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며, 창업 교육 참여 횟수와 기업가정신 사이에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한 문항의 구조모형 적합도는 <표 8>과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연구모형의 구조모형 적합도

| 모형   | $\chi^2$   | df  | TLI   | CFI   | RMSEA |
|------|------------|-----|-------|-------|-------|
| 측정모형 | 459.519*** | 142 | 0.919 | 0.933 | 0.074 |

구조모형분석 결과 창업 교육 참여 횟수는 기업가정신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beta=0.120$ ,  $p<.01$ ) 또한 창업 교육 참여 횟수는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업도전감은 기업가정신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신감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9>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 경로                    | Estimate |         | S.E. | C.R.      |
|-----------------------|----------|---------|------|-----------|
|                       | B        | $\beta$ |      |           |
| 창업 교육 참여 횟수 → 기업가정신   | .061     | .120    | .021 | 2.994**   |
| 창업 교육 참여 횟수 → 자신감     | .102     | .204    | .031 | 3.305***  |
| 창업 교육 참여 횟수 → 자기조절효능감 | .068     | .173    | .025 | 2.747**   |
| 창업 교육 참여 횟수 → 과업도전감   | .132     | .282    | .030 | 4.393***  |
| 자신감 → 기업가정신           | .100     | .098    | .052 | 1.913     |
| 자기조절효능감 → 기업가정신       | .326     | .251    | .069 | 4.740***  |
| 과업도전감 → 기업가정신         | .703     | .641    | .065 | 10.780*** |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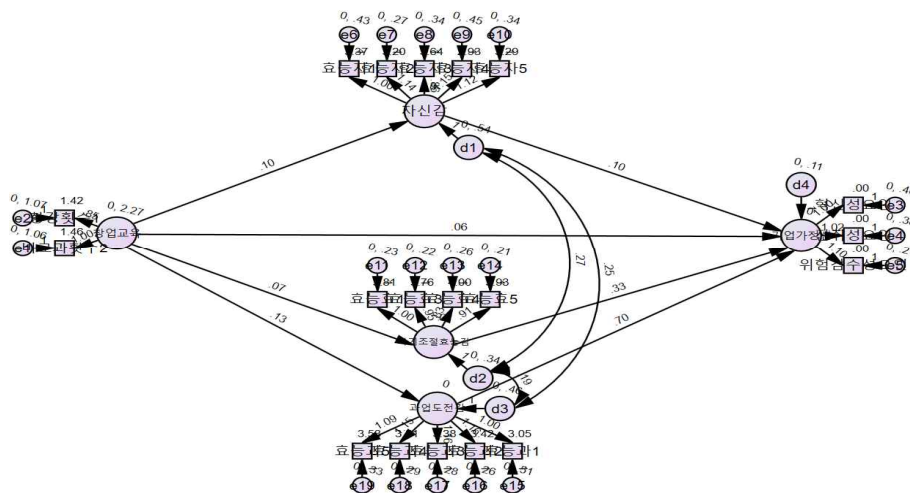
## 4.5.2 매개효과 검증

창업 교육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중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팬텀 변수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ias Corrected Bootstrapping)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Estimate, S.E.,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값을 분석하였다. 자기조절효능감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06 ~.046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자기조절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업도전감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58 ~.138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과업도전감도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신감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01 ~ .026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이고 있어,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신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표 10〉 매개효과 검증

| 경로                            | Estimate | S.E. | 95% 신뢰구간    |
|-------------------------------|----------|------|-------------|
| 창업 교육 참여 횟수 → 자신감 → 기업가정신     | .010     | .007 | -.001 ~.026 |
| 창업 교육 참여 횟수 → 자기조절효능감 → 기업가정신 | .022     | .010 | .006 ~.046  |
| 창업 교육 참여 횟수 → 과업도전감 → 기업가정신   | .093     | .020 | .058 ~.138  |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 4.6 추가연구 분석

연구에서 분석한 창업 교육은 정규교과 창업교육과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창업 교육의 종류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 횟수가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정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추가로 검증해 본다면, 본 연구 결과와 더불어 창업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고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 교육의 종류와 참여 횟수에 따라 주요 변수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교과 창업교육과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를 각각 참여 경험 없음(a), 1~2회(b), 3~5회(c)로 구간을 설정하고, 창업 교육의 종류에 따라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 기업가정신의 평균 차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표 11〉 정규교과 창업교육 수강 횟수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정신 차이 비교

| 종속변수        | 집단<br>(교육참여횟수)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Scheffe |
|-------------|----------------|-----|------|------|-----------|------|---------|
| 자신감         | 0(a)           | 166 | 3.13 | 0.81 | 6.346**   | .002 | a<c     |
|             | 1~2(b)         | 156 | 3.34 | 0.84 |           |      |         |
|             | 3~5(c)         | 85  | 3.51 | 0.84 |           |      |         |
| 자기조절효<br>능감 | 0(a)           | 166 | 3.84 | 0.55 | 4.472*    | .012 | a,b<c   |
|             | 1~2(b)         | 156 | 3.82 | 0.62 |           |      |         |
|             | 3~5(c)         | 85  | 4.05 | 0.65 |           |      |         |
| 과업<br>도전감   | 0(a)           | 166 | 3.25 | 0.83 | 7.438**   | .001 | a,b<c   |
|             | 1~2(b)         | 156 | 3.35 | 0.85 |           |      |         |
|             | 3~5(c)         | 85  | 3.67 | 0.71 |           |      |         |
| 기업가<br>정신   | 0(a)           | 166 | 3.46 | 0.64 | 15.263*** | .000 | a,b<c   |
|             | 1~2(b)         | 156 | 3.61 | 0.68 |           |      |         |
|             | 3~5(c)         | 85  | 3.93 | 0.56 |           |      |         |

\*p<.05, \*\*p<.01, \*\*\*p<.001

〈표 12〉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 참여 횟수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정신 차이 비교

| 종속변수        | 집단<br>(교육참여횟수) | 표본수 | 평균   | 표준편차 | F       | p    | Scheffe |
|-------------|----------------|-----|------|------|---------|------|---------|
| 자신감         | 0(a)           | 196 | 3.22 | 0.89 | 5.596** | .004 | a,b<c   |
|             | 1~2(b)         | 107 | 3.19 | 0.77 |         |      |         |
|             | 3~5(c)         | 104 | 3.52 | 0.76 |         |      |         |
| 자기조절효<br>능감 | 0(a)           | 196 | 3.82 | 0.58 | 3.574*  | .029 | a<c     |
|             | 1~2(b)         | 107 | 3.84 | 0.67 |         |      |         |
|             | 3~5(c)         | 104 | 4.01 | 0.55 |         |      |         |

청년의 창업 교육 참여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 구성 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           |        |     |      |      |           |      |       |
|-----------|--------|-----|------|------|-----------|------|-------|
| 과업<br>도전감 | 0(a)   | 196 | 3.23 | 0.90 | 9.765***  | .000 | a,b<c |
|           | 1~2(b) | 107 | 3.37 | 0.77 |           |      |       |
|           | 3~5(c) | 104 | 3.66 | 0.67 |           |      |       |
| 기업가<br>정신 | 0(a)   | 196 | 3.43 | 0.69 | 16.548*** | .000 | a<b,c |
|           | 1~2(b) | 107 | 3.71 | 0.61 |           |      |       |
|           | 3~5(c) | 104 | 3.86 | 0.57 |           |      |       |

\*p<.05, \*\*p<.01, \*\*\*p<.001

정규교과 창업교육을 수강한 횟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 기업가정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신감( $F=6.346$ ,  $p<.01$ ), 자기조절효능감( $F=4.472$ ,  $p<.05$ ), 과업도전감( $F=7.438$ ,  $p<.01$ ), 기업가정신( $F=15.263$ ,  $p<.001$ )의 집단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Scheffe의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신감은 참여 경험이 없는 집단 대비 3회 이상 참여한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 기업가정신은 2회 이하 참여한 두 집단 대비 3회 이상 참여한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 자신감( $F=5.596$ ,  $p<.01$ ), 자기조절효능감( $F=3.574$ ,  $p<.05$ ), 과업도전감( $F=9.765$ ,  $p<.001$ ), 기업가정신( $F=16.548$ ,  $p<.001$ )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Scheffe의 사후 분석을 시행한 결과 자신감, 과업도전감은 2회 이하 참여한 두 집단 대비 3회 이상 참여한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효능감은 참여 경험이 없는 집단 대비 3회 이상 참여한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 대비 1회 이상 참여한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볼 때 창업 교육의 두 가지 형태 모두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정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은 정규교과 창업교육보다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데 더 효과적임을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 5.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참여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를 매개로 하여 실증분석하였으며, 추

가연구에서 창업 교육의 유형에 따른 교육 효과성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진행된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연구모형의 가설검증 결과 요약

|      | 가설                                                       | 결 과 |
|------|----------------------------------------------------------|-----|
| H1   | 창업 교육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
| H2-1 | 창업 교육 참여 횟수는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
| H2-2 | 창업 교육 참여 횟수는 자기조절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
| H2-3 | 창업 교육 참여 횟수는 과업 도전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
| H2-1 | 자신감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기각  |
| H2-2 | 자기조절효능감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
| H2-3 | 과업도전감은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채택  |
| H2-1 | 자신감은 창업 교육 참여 횟수와 기업가정신을 매개할 것이다.                        | 기각  |
| H2-2 | 자기조절효능감은 창업 교육 참여 횟수와 기업가정신을 매개할 것이다.                    | 채택  |
| H2-3 | 과업도전감은 창업 교육 참여 횟수와 기업가정신을 매개할 것이다.                      | 채택  |
| 추가   | 창업 교육 유형별 참여 횟수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와 기업가정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채택  |

먼저 구조모형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창업 교육 참여 횟수는 기업가정신,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 도전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업도전감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감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창업 교육 참여 횟수가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업도전감을 매개로하여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추가 연구로 창업 교육을 정규교과 창업교육과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으로 나누어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정규교과 창업교육과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 모두 참여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업도전감, 기업가정신이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창업교육 종류의 횟수별 영향 정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은 정규교과 창업교육에 비해 기업가정신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 5.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 5.2.1 연구의 시사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키는 요소는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이 있다(Bandura, 1977). 창업가의 성공 스토리, 창업에 대한 이론적 강의들은 대리 경험이나 언어적 설득의 효과가 있어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자기 효능감의 과업 도전감은 체험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 더욱 효과적임을 볼 수 있다. 창업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각 요소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의 형태와 내용으로 기획하고,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접점들을 만들어 좀 더 세심한 교육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결과에서 보듯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인 자신감은 기업가정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무언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단순한 자신감은 혁신을 만들어 내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가정신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이나 문제 해결의 경험을 통해 혁신적인 자신감, 창의적 문제 해결의 자신감 등을 키우는 교육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정규교과 과정에서 학사 일정에 맞춰 과제를 완성하거나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에서 팀원들과 협력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들은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업 도전감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창업은 문제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사업화 단계에 이르게 하도록 만들기까지 여러 단계의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고난이도의 과제에 대한 도전 의식이 필요한데, 창업 교육을 통해 향상된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업 도전감이 기업가정신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창업 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창업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규교과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형태의 창업 교육을 개설하여 청년들의 교육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교육은 교육의 목적에 따라 내용이 설계되어야 하므로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만을 목적으로 하는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인지에 따라 창업 교육의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이 창업교육과정에서 수강 계획을 세울 때도 정규교과 창업교육 과정과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적절

히 배분해서 계획해야 할 것이다.

### 5.2.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높이는 요소로 창업 교육 참여 횟수를 주요 변수로 하였으나, 이 외에도 창업 교육에 대한 만족도, 교육의 내용, 교수자의 역량, 구성원의 특징, 개인의 태도 및 성격 등 다양한 변수들이 교육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기업가정신을 만드는 과정을 연구해본다면 창업 교육의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창업 교육 참여를 정규교과와 비교과프로그램의 창업 교육 참여 횟수로 나누어 양적 비교를 하였으나, 정규교과의 내용과 비교과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추가한다면 각 교육의 세부 내용이 만들어 내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기업가정신도 하나의 요인이 아닌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다면 기업가정신이 창업 의도나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김성미(2020),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이 대학생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  
기초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글로벌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식·전병훈(2021), “기업가정신이 과업도전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Baron & Kenny와 Hayes의 검증 방법을 중심으로”, 신용카드리뷰, 15(1), 54-74.
- 김아영·차정은·강한아·임경민·전현아·조혜령·임지영·석혜은(2012), “학업능력  
집단별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조절효능감 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6(2),  
543-562.
- 김용태(2018),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간의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비교 연구”, 벤처창업연구, 13(4), 49-58.
- 김택수(2016),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와 사업실패  
부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정민(2017), “기업가정신 온라인교육의 효과성 검증”, 벤처창업연구, 12(2), 31-40.
- 목영두·최명길(2012), “대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위한 창업학 교육과정 개발 모형 연  
구”, 대한경영학회지, 25(2), 833-857.
- 박재성(2018), “4차 산업혁명시대 창업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창업교육의 유형별 중  
심”, 한국창업학회지, 13(1), 40-67.
- 박채춘·김달원·황지영·남정민(2021), 창업행동 세미나, 서울: 한경사
- 박찬희(2017), 대학 소자본 창업체험교육이 대학생의 창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귀희(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  
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5(2), 199-227.
- 송영수(2010), 지식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정신, 서울: 자유기업원.
- 안태욱(2017), 대학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준환(2014), “기업가정신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창  
업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6), 65-77.
- 원상필·조근태(2018), “정부와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기술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 기업가정신과 4차 산업혁명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3(2),  
1-28.

- 윤백중(2012), 대학생의 창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종록·김형철(2009), “벤처기업의 창업가 특성과 차별화 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한경영학회지, 22(6), 3693-3721.
- 이준우·한유진·김도현·서유미·이경원·이희우·이영달(2014), 기업가정신의 이해, 서울 : 중소기업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이준우(2019),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의 정의의 통합모형: 직무관점 및 역량 모델 관점의 적용” , 중소기업연구, 41(1), 97-129.
-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창업진흥원·한국연구재단(2019), 2018년 대학 창업 인프라 실태조사.
- 한경석(2020), 기업가정신 및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 자기효능감과 창업실패부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현경(2012), 자기효능감이 직무 착근도, 혁신행동과 조직구성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특 1급 호텔 근무형태에 따른 조절효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국외문헌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 Wood, R. (1989), “Effect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and performance standards on self-regulation of complex decision making”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5), 805-814.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 Covin, J. G., & Slevin, D. P.(1986),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organizational-level entrepreneurship scale.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Babson College.
- Covin, J. G., & Slevin, D. P.(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 청년의 창업 교육 참여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 구성 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behavior” , Entrepreneurship: Critical perspectives on business and manahement, 3,  
5-28.
- Drucker, P. F.(1985), Innovation & Enterpreneurship. Practice & Principles, Harper.
- Gary P. Latham & Edwin A. Locke(1991), “Self-regulation through goal setting” ,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212-247.
- Isenberg, D.(2011),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rategy as a new paradigm for  
economy policy: principles for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Babson Entrepreneurship  
Ecosystem Project, Babson College, Babson Park: MA.
- Mark Sherer, James E. Maddux, Blaise Mercandante, Steven Prentice-Dunn, Beth Jacobs  
& Ronald W. Rogers(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Nancy G. Boyd & George S. Voziki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8(4), 63-77.
- Newman Alexander · Obschonka Martin · Schwarz Susan · Cohen Michael · Nielsen  
Ingrid(201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ts theoretical found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outcomes,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03-419.
- Ronstadt,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1), 7-23.
- Schunk, D. H. (1991),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 Educational  
psychologist, 26(3-4), 207-231.
- Vesper, K. H.(1982), Research on Education for Entrepreneurship, in Kent, C., Sexton, D.,  
& Vesper, K.(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Abstract>

## Effects of Young People's Participation in Start-up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 Verification of Intermediate Effects of Self-efficacy Components

By analyz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and self-efficacy on young people under 39, we studied how entrepreneurship affects self-efficacy and how components of self-efficacy mediates start-u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respectively. The types of start-up education were divided into regular lectures, comparisons, and start-up programs to study whether the sub-factors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ship significantly increase with the number of participations. According to the research, participation in start-up education affected entrepreneurship, confidence, self-regulation efficacy, task challenge preference, self-regulation effectiveness, and task preference. In addition, the sense of self-regulation and task challenge mediates participation in start-u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curriculum start-up education and comparison and start-up programs has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entrepreneurship, confidence, self-regulation, and task advancement. Especially comparison and start-up programs have a more positive impact on entrepreneurship.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tart-up education through the design of curriculum which is suitable for the purpose of start-up education and individual education participation plans.

Keywords : Start-up education, entrepreneurship, self-efficacy